



## 상실과 부재를 응시하는 '사랑의 언어'

###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나희덕 지음

“말들이 돌아오고 있다/ 물방울을 흠뻑리며 모래알을 일으키며/ 바다 저편에서 세계 저편에서/ 흰 갈기과 검은 발굽이/ 시간의 등을 후려치는 채찍처럼/ 밀려오고 부서지고 밀려오고 부서지고 밀려오고/ 나는 물거품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중)

조선대 문창과 교수인 나희덕(48) 시인이 시집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을 냈다. 2009년 ‘야생사과’(창비) 이후 5년 만에 펴낸 이번 시집은 그동안의 시 세계와 다소 변별된다.

그동안 시인은 정제된 언어와 따뜻한 은유로 자신만의 시세계를 펼쳐왔다. 그의 시가 맑은 서정과 지적인 사유를 내재한 연유다.

어떤 이는 그의 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세상살이를 견딜 수 있는 잔잔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시속에 깃든 나직한 음성에서 사나고 난한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었다는 이도 있다.

그의 시가 단순한 기교와 재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미의 바다를 헤엄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의 시에 깃든 은유함과 치열함, 예민함과 담담함은 일정 부분 시인의 모습과 일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시가 단순한 문학작품 이전에 ‘인간’을 드러내는 장르인 것은 시인의 성격, 기질이 오롯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시집에서는 상실과 부재의 아픔을 깨닫는 사람의 힘에 주목한다. 수난의 반복 속에서도 회복하는 언어의 생명력을 노래한다.

충남 논산이 고향인 시인은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나왔다. 첫 시집 ‘뿌리에게’(창비·1991)를 필두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창비·2003) ‘그곳이 멀지 않다’(문학동네·2011) 등을 펴냈다. 그동안 자기희생, 소멸, 생성 같은 주제에 천착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해왔다.

시인은 지난 2001년 조선대학교 문창과에 임용이 되면서 광주로 자리를 옮겨온다. 그녀의 문학을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유년의 성장기다.

어머니가 보육원 총무를 했던 연유로 그녀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고 한다. 어느 편에도 속할 수 없었을 게다. 이때의 ‘어정쩡한’ 체험은 그를 내면화시켰고 깊고 넓게 성장시켰으리라.

그의 시가 약자에 대한 연민에 닿아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편에도 저편에도 속할 수 없었던 방외자의 시선도 있지 않을까 싶다. 더러는 보육원의 기억을 자신의 시작과 연계했다는 이유로 꼽지 않은 시선도 받았을 테다.

그러나 결국 시인은 시로 말한다. 문학은 정적하다. 사는 만큼, 살아온 만큼 쓰게 된다. 차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자신의 언어로 형상화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시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언어로 집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신작 시집에서 시인은 역시나 자신이 쓰고자 하는 한 편의 시를 응시한다. 표제작 ‘말들이 오는 시간’에서 “수만의 말들이 돌아와 한 마리 말이 되어 사라지는 시간”은 어쩌면 자신의 존재를 건 ‘시’에 대한 열망으로 읽힌다. 그것은 또한 진실과 사랑의 힘이자 생명의 언어이기도 하다.

“한 손은 사랑에게, 다른 한 손은 죽음에게 건



나희덕

네려 한다. 아니다. 사랑과 죽음을 어찌 한 손으로 감당할 수 있으랴. 누추한 두 손을 모을 수밖에 없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여러 손등은 죽음 앞에, 거친 손바닥은 사랑 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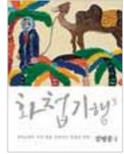
(문학고지성사·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찬란한 자연과 가난·슬픔이 공존하는 땅, 북아프리카

### '화첩기행 5'

김병중 지음



화가이자 서울대 미대 교수인 김병중씨의 ‘화첩기행 5’가 나왔다. 인문정신과 예술혼이 씨줄과 날줄로 아름답게 수놓인 산문이라는 평을 듣는 그의 글은 이번에도 한 쪽의 그림처럼 독특한 향기를 발한다.

‘화첩기행 5’는 찬란한 자연 이면에 가난, 슬픔이 공존하는 아프리카에 대한 단상을 담고 있다.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의 독특한 풍광이 김병중의 섬세한 사유와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살아났다.

관련 ‘화첩기행’ 연작은 이전에 출간된 ‘화첩기행’ 3권, ‘김병중의 모노레터’ ‘김병중의 라틴화첩기행’을 주제별로 분류, 4권으로 묶고 6년 만에 북아프리카 편을 첨가해 전 5권으로 나왔다.

저자는 그동안 살면서 배터리가 방전될 때마다 짐을 꾸려 바닷길로 자유로이 길을 나서곤 했다. 북아프리카를 여행지로 담은 까닭은 그곳이 하나의 고유한 문화가 다른 문화와 만나 독특한 색채를 내뿜는 지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의 붓길을 잡아끄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제 3의 영역이었다.

“풍경이 험난하면 붓도 험난해진다. 풍경이 황홀하면 붓도 험난히 황홀해지는 것이다. 카리브 연안을 돌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내가 만난 풍경들 중에는 유난히 ‘색채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많았다... 이제 여행은 끝났다. 그러나 아직도 그 황홀한 풍경들은 잔상으로 남아 눈앞에 간담없이 떠오른다.” <문학동네·1만4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코카콜라는 청량음료가 아닌 자양강장제였다

### '욕망의 코카콜라'

김덕호 지음



코카콜라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 책이 나왔다. 한국 기술교육대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김덕호 박사가 쓴 ‘욕망의 코카콜라’는 코카콜라의 탄생, 변신 등 코카콜라를 통해서 본 소비사회의 단면을 조명한다.

1886년 탄생한 코카콜라는 당시에는 청량음료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두통이나 위장병을 다스리기 위한 의약품이었다. 일반적인 음료라기보다는 자양 강장제의 성격이 강했다.

코카콜라가 본격적인 음료로 변신하게 된 계기는 도시의 탄산음료매장이 확대되면서 부터다. 판매량도 급증하게 된다. 지속적인 광고와 판촉물, 무료시음권으로 차츰 시장을 넓혀간 코카콜라는 마침내 미국을 대

표하는 음료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후원하며 이를 광고로 활용,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코카콜라는 소비자본주의의 욕망의 실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지구상에서 코카콜라를 만날 수 없는 곳은 문명이 닿지 않는 오지 외에는 없을 만큼 세계적인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는 역설적으로 소비자본주의가 전 세계 곳곳에서 위세를 떨치고 그로 인한 환경의 악화와 자원의 고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코카콜라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 간단치 않다.

(지호·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목숨을 담보로 한 연구, 과학자의 삶

### '과학의 순교자'

이종호 지음



과학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면서도 불운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과학자들의 삶을 다룬 책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호 박사가 펴낸 ‘과학의 순교자’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난관과 위험도 감수했던 과학자들의 ‘순교자 정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책에는 모두 20여 명의 과학자가 등장한다. 방사능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사망한 마리 퀴리, 번개실험을 하

다가 번개에 맞아 즉사한 리히만, 소다를 개발한 르블랑 등은 다소 익숙한 과학자들이다.

이와 달리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선 과학자들도 등장한다. 고무의 실용화 방법을 설명하고 특허를 받았음에도 소송과 파산으로 절절된 찰스 굿이어, 3차에 걸쳐 해양 탐험으로 대항해시대를 열었지만 화와이섬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했던 제임스 쿡의 이야기도 수록돼 있다.

(시공·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클래식카메라 중증마니아의 예찬론

### '나의 클래식카메라'

아카세가와 겐페이 지음



문화가이자 전위예술가이기도 한 아카세가와 겐페이는 ‘카메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증 환자다.

카메라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부러 영국까지 가는 것은 기본이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새 열 개가 넘는 삼각대를 늘어놓고 있다.

아카세가와가 카메라 바이러스 감염자의 투병기인 ‘나의 클래식카메라 탐닉’을 펴냈다. 자신의 클래식카메라 취미에 대해 가장 적나라하게 쓴 에세이집이다.

일본의 카메라 잡지 ‘니혼카메라’에 3년간 연재된 글을 모은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취미에 대해 그야말로 무엇 하나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저자의 좌우물 클래식카메라 권력을 따라가다 보면, 디지털이 점령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그 매력에 한껏 빠지게 될 것이다. 어느새 바이러스에 감염돼 옛 카메라를 찾아 서랍을 뒤지고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라. (늘와·1만2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건축에 대하여, 도시에 대하여, 건축가에 대하여

### '빨간 도시...'

서현 지음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꿈에서 그리는 도시가 있다. 바로 스페인 발바오다. 이상아듯한 형태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관광객이 북적이고, 망해가던 탄광도시가 부활했다는 신화를 왜곡되게 받아들인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고장에 그런 ‘건물’을 세워 도시를 일으키겠다는 야망에 불타오른다.

그는 발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술관 옆 어린이놀이터와 보행자들을 위한 폭넓은 도로 등 관광객을 위한 도시가 아닌, 시민들을 위한 도시를 지향하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한다.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건축을 듣다’, ‘배움림 기둥의 고백’의 저자 서현이 새 책 ‘빨간 도시-건축으로 목격하는 대한민국’을 내놓았다.

책은 어떤 건축에 대하여, 어떤 도시에 대하여, 어떤 건축가에 대하여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계절을 잃어버린 아파트, 일상의 병영을 연상케 하는 학교 건물, 예식장과 러브 호텔과 장례식장 등 한국인의 삶 속에 녹아있는 건축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진보와 이성, 공정한 게임의 존재를 믿고 건축을 믿지 않는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돋보이는 책이다. 예뻐라기보다는 직설적이고 간결한 글쓰기도 인상적이다. <효형출판·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신간

### ▲체게바라를 따라 무작정 쿠바 횡단=산티아고 데 쿠바, 카마구웨이, 산타클라라... 쿠바 혁명의 길을 거쳐 산티 스피리투스, 마탄사스, 아바나까지 8박 9일의 쿠바 탐험기. 저자 이규봉이 그의 몸을 실은 자전거 속도처럼 알아간 쿠바의 어제와 오늘, 도시와 농촌, 그리고 혁명가들의 이야기이다. 언론이나 책을 통해 접해왔던 쿠바의 정제된 일면이 아닌, 느리지만 주류와는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쿠바의 내면과 역사를 만났다. <푸른역사·1만5000원>

▲허허 동이보감2=400년 전의 ‘동이보감’을 현재의 관점에서 풀어헤쳐 실용, 재미, 지식과 교양을 선사하고 있는 ‘허허 동이보감’. 2권 ‘기통차게 살자’에서는 정(精)과 기(氣)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허영만 화백은 특유의 재치와 유희로 정을 좋게 하는 음식과 생활습관부터 정이 허하거나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과 다양한 치료법 등 실용적 정보들을 가득 담았다. <시루·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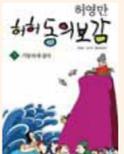
▲건강도시를 향하여=제이슨 코반이 쓴 ‘건강도시를 향하여:사람, 장소, 그리고 도시계획의 정치’는 ‘건강도시계획’이라 불리는 새로운 의사결정의 틀을 제안한다. 건강도시계획은 건강도시 지배구조로 볼 수 있다. 인간과 인성에 기여하는 실질적 내용, 장소, 인구집단 사이에서 도시 건강을 증진시키는 물리적·사회적 자원들의 분포를 형성하는 의사결정과정과 제도 두 가지 모두가 향상된다. <한울·4만2000원>



▲메타생각=생각 위의 생각, ‘생각의 2중 스캐닝 원리’를 파헤친 책이다. 현직 변호사이며 인텔리곤 융합 연구소 소장이자 저자 임영익은 기묘한 ‘생각의 2중 스캐닝 원리-메타생각 (meta-thinking)’을 소설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간다. 책은 그런 창의적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저자의 메타생각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리온미디어·1만9500원>

▲나는 찍는다 스마트폰으로=스마트폰 사진을 찍은지 1년 만에 개인 사진전을 열고 인기 사진작가의 반열에 오른 한창민 작가가 전하는 지난 1년간의 기록이다. 첫번째 장 ‘지난 일년’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사용법을, 두 번째 장 ‘활영 이후’에서는 활영이 끝난 뒤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알려준다. 마지막 세번째 장 ‘한창민 사진전’에서는 사진전 준비 과정과 2주간 이어진 실제 전시회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오픈하우스·1만6000원>

▲한없이 작은, 한없이 위대한=30여 년 전 ‘산소 혁명’을 통해 현재의 지구를 만든 주인공은 바로 미생물이다. 그들은 인류의 동반자로서 인류 진화사 전체와 함께한다. 우리가 틀어막는 공기도 순전히 미생물 덕분에 만들어진 것이다. 책을 우리를 둘러싼 친숙한 환경부터 극한의 조건에서도 살아가는 미생물에 대한 놀랍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케이북·1만9500원>



### ▲동물이 살아있다=세계 최초로 제작된 증강현실 퍼즐북. 아이들이 알아야 할 동물의 습성과 특징을 책과 증강현실로 배우고 보는 신개념 도서다. 퍼즐을 조립한 후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추면 마법 같은 영상을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이 단순한 게임만을 위한 도구가 아닌, 학습과 흥미를 주는 학습 도구로 만들어 준다. <제이앤씨·1만4800원>

▲빨간 새=너무 빨간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새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작은 새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 그림책. 마음이 공공 얼었던 한 아이에게 작은 새 한 마리만 따뜻한 선물을 안겨준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림이 더해져 새와 아이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 준다. <문학과 지성사·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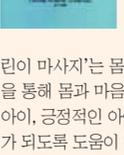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현장감 넘치는 학교생활은 물론, 취학 통지서를 받고



학교에 가기까지 아이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다양한 감정들을 직접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생생하게 전한다. 예비 초등학교생과 1학년 아이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시공주니어·7000원>



▲어린이 요가 왜 아이들을 위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나의 첫 시리즈’ 3권이 나왔다. ‘어린이 요가’, ‘어린이 명상’, ‘어린이 마사지’는 몸의 균형 발달과 마음의 안정을 통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 안정감 있는 아이, 긍정적인 아이, 나아가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되도록 도움이 된다. <씨드북·각 권 1만5000원>



▲엄마 아빠 기다리신다=박완서 작가의 타계 3주기를 추모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된 그림동화책. ‘박완서 그림동화’라는 이름으로, 박 작가의 1995년 전집에 실린 동화를 단행본으로 새롭게 출간했다.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을 읽으며 자란 신실극 그림작가가 재창조했다. <어린이작가정신·1만원>

## 어린이 책꽂이